

#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 하반기 신흥국 증시, 패자의 역습 시즌 II

**Focus** ▶ 3p 참고

Strategist 이경민 02.769,3840 kmlee337@daishin.com

신흥국의 강세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 주목할 부분은 1) 글로벌 동반회복, 2)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 하반기 신흥국 증시의 새로운 상승동력은 글로벌 성장모멘텀 회복 / 인플레이션 환경에 따른 신흥국 수출모멘텀 강화 / 이익 개선세. 하반기에는 수출주도 국가 중심의 '패자의 역습 시즌 2'를 기대. 벨류에이션 매력도, 글로벌 교역과 상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최선호 국가는 한국, 유망국가는 대만과 폴란드

2014년 06월 11일 수요일

### KOSPI

2011.8 ▲21.76 (1.09%)

	6/05	6/09	6/10
종가	1995.48	1990.04	2011.80
등락	-13.08	-5.44	21.76
등락폭(%)	-0.65	-0.27	1.09
거래량(백만주)	221	208	234
거래대금(십억원)	5,015	4,417	3,822
시가총액(십억원)	1,148,458	1,145,305	1,157,852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 KOSDAQ

532.64 ▲8.61 (1.64%)

	6/05	6/09	6/10
종가	523.12	524.03	532.64
등락	-8.16	0.91	8.61
등락폭(%)	-1.54	0.17	1.64
거래량(백만주)	261	232	239
거래대금(십억원)	1,558	1,336	1,387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증시일정** ▶ 2p

**파생시황** ▶ 10p

**Chart Alarm** ▶ 11p

**매매 및  
자금동향** ▶ 17p

10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1.09% 상승  
한 2011.80에 마감

# 주간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b>2</b>	<b>3</b>	<b>4</b>	<b>5</b>	<b>6</b>
美 5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치:54.9, 발표치:56.4) 1일 中 5월 제조업 PMI (전기치:50.4, 발표치:50.8) 韓 5월 수출 (전기치:9.0%, 발표치:-0.9%) 韓 5월 수입 (전기치:5.0%, 발표치:0.3%)	美 4월 제조업주주 (전기치:1.5%, 발표치:0.7%) EMU 5월 소비자물가 발표 (전기치:0.7%, 발표치:0.5%) 中 5월 HSBC 제조업 PMI 최종 (전기치:48.1, 발표치:49.4) 韓 5월 소비자물가 (전기치:1.5%, 발표치:1.7%)	美 5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치:215K, 발표치:179K) 美 5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치:55.2, 발표치:56.3) EMU 1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치:0.9%, 발표치:0.9%) 美 베이지북 G7 정상회담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치:304K, 발표치:312K) EMU 4월 소매판매 (전기치:1.0%, 발표치:2.4%) 韓 1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치:3.9%, 발표치:3.9%) 獨 4월 공장주주 (전기치:1.5%, 발표치:6.3%) ECB 회의 G7 정상회담	美 5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치:282K, 발표치:217K) 美 5월 실업률 (전기치:6.3%, 발표치:6.3%) 獨 4월 산업생산 (전기치:2.9%, 발표치:1.8%)
<b>9</b>	<b>10</b>	<b>11</b>	<b>12</b>	<b>13</b>
EMU 6월 섹터투자지대 (전기치:12.8, 예상치:13.3) 日 1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치:5.9%, 예상치:5.6%) 8일 中 5월 수출 (전기치:0.9%, 발표치:7.0%) 中 5월 수입 (전기치:0.8%, 발표치:-1.6%)	美 4월 JOLTs 신규고용 (전기치:4.0M, 예상치:4.1M) 中 5월 소비자물가 (전기치:1.8%, 예상치:2.4%) 中 5월 생산자물가 (전기치:-2.0%, 예상치:-1.5%)	韓 5월 실업률 (전기치:3.7%, 예상치:3.5%)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치:312K, 예상치:309K) 美 5월 소매판매 (전기치:0.1%, 예상치:0.6%) EMU 4월 산업생산 (전기치:-0.1%, 예상치:0.9%) 韓 금통위 日 금정위	美 6월 미시건 소비심리지수 (전기치:81.9, 예상치:83.0) 中 5월 산업생산 (전기치:8.7%, 예상치:8.8%) 中 5월 소매판매 (전기치:11.9%, 예상치:12.2%) 中 5월 고정자산투자 (전기치:17.3%, 예상치:17.1%) 日 금정위
<b>16</b>	<b>17</b>	<b>18</b>	<b>19</b>	<b>20</b>
美 5월 산업생산 (전기치:-0.6%, 예상치:--) 美 5월 설비가동률 (전기치:78.6%, 예상치:--) 	美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기치:0.3%, 예상치:--) 美 5월 주택착공건수 (전기치:1072K, 예상치:--) 美 5월 건축허가건수 (전기치:1080K, 예상치:--) 獨 6월 ZEW 예상 (전기치:33.1, 예상치:--) 美 FOMC	韓 5월 생산자물가지수 (전기치:-0.3%, 예상치:--) 日 5월 수출 (전기치:5.1%, 예상치:--) 日 5월 수입 (전기치:3.4%, 예상치:--) 美 FOMC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5월 경기선행지수 (전기치:0.4%, 예상치:--) 	EMU 6월 소비자지대지수 (전기치:-7.1, 예상치:--) 
<b>23</b>	<b>24</b>	<b>25</b>	<b>26</b>	<b>27</b>
美 5월 기준주택매매 (전기치:4.65M, 예상치:--) EMU 6월 제조업 PMI 잠정 (전기치:52.2, 예상치:--) EMU 6월 서비스업 PMI 잠정 (전기치:53.2, 예상치:--) 獨 6월 제조업 PMI 잠정 (전기치:52.3, 예상치:--) 中 5월 HSBC 제조업 PMI 잠정 (전기치:49.4, 예상치:--) 	美 4월 CS 주택가격지수 (전기치:1.24%, 예상치:--) 美 5월 신규주택매매 (전기치:433K, 예상치:--) 獨 6월 IFO 기업환경 (전기치:110.4, 예상치:--) 	美 5월 내구재주문 (전기치:0.8%, 예상치:--) 美 1Q 경제성장률 3차추정 (2차:-1.0%, 예상치:--)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5월 개인소득 (전기치:0.3%, 예상치:--) 美 5월 개인소비 (전기치:-0.1%, 예상치:--) 	EMU 6월 경기기대지수 (전월치:-3.0, 예상치:--) 韓 5월 산업생산 (전기치:2.4%, 예상치:--) 韓 5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전기치:101.4, 예상치:--) 日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기치:3.4%, 예상치:--) EU 정상회담
<b>30</b>	<b>7/1</b>	<b>2</b>	<b>3</b>	<b>4</b>
美 5월 미결주택매매 (전기치:0.4%, 예상치:--) EMU 6월 소비자물가 예상 (전기치:0.5%, 예상치:--) 	美 6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치:56.4, 예상치:--) 中 5월 제조업 PMI (전기치:50.8, 예상치:--) 中 5월 HSBC 제조업 PMI 최종 (전기치:49.4, 예상치:--) 	美 5월 제조업주주 (전기치:0.7%, 예상치:--) 美 6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치:179K, 예상치:--)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6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치:56.3, 예상치:--) 美 6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치:217K, 예상치:--) 美 6월 실업률 (전기치:6.3%, 예상치:--) ECB 회의	獨 5월 공장주주 (전기치:6.3%, 예상치:--)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 투자포커스

### 하반기 신흥국 증시, 패자의 역습 시즌 II

Strategist 이경민 769-3840 kmlee337@daishin.com

####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신흥국 증시

연초 남미발 금융불안의 충격을 딛고 상승세를 이어오던 신흥국 증시는 2013년 이후 고점권에 도달한 상황이다.

선진국대비 상대강도 또한 직전 고점이자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지/저항선 역할을 했던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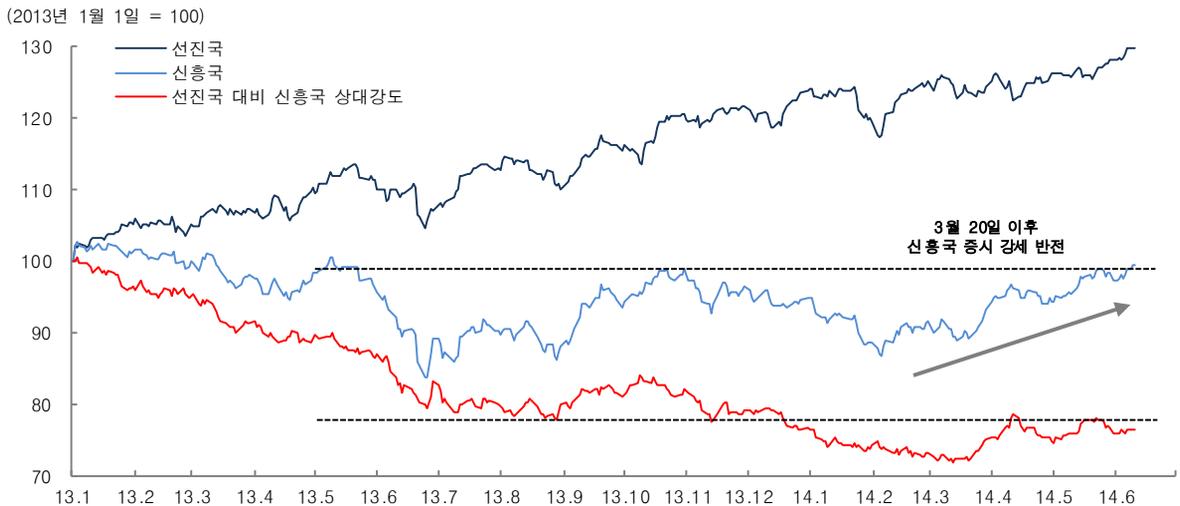
그동안 글로벌 경기는 미국이 완만한 개선세를 주도해왔고, 유동성 공급도 선진국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저성장 /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성장모멘텀에 민감한 신흥국의 매력도가 선진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흥국 증시의 최근 상승은 과열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상승동력이 부각되지 못한다면 신흥국 지수와 상대강도의 분기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글로벌 기초 여건의 개선이 뒷받침되고, 고정관념이 변화한다면 신흥국 증시의 초과성과(선진국 대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중요 분기점에 위치한 신흥국 증시



주: MSCI 지수 기준. 선진국은 MSCI World 지수, 신흥국은 MSCI EM 지수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 신흥국 증시의 패러다임 Shift의 기폭제

신흥국의 강세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1) 글로벌 동반회복, 2)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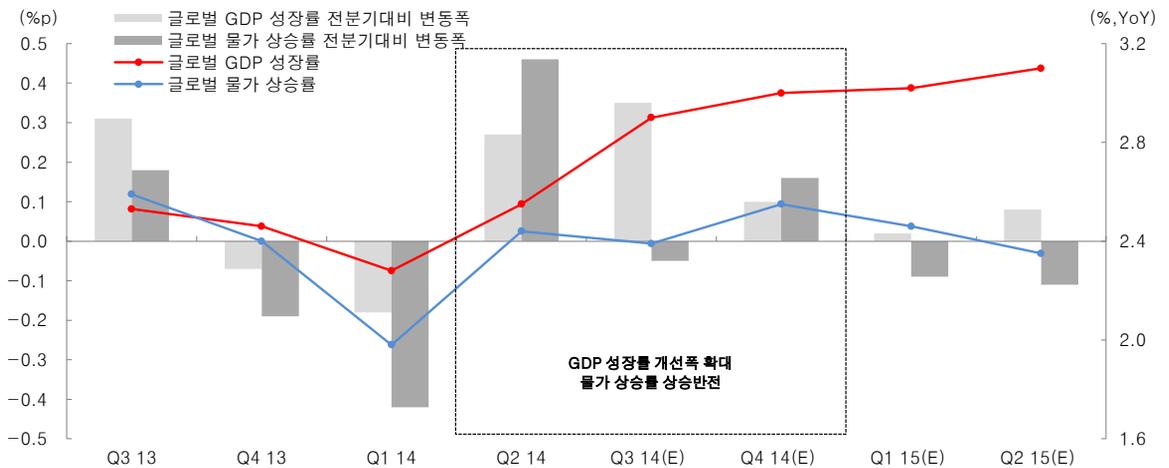
하반기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저성장 / 저물가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모멘텀 회복 /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동반 성장이라는 성장축의 다변화도 글로벌 경기신뢰도 강화와 수요확대를 야기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흥국 증시에 새로운 상승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신흥국의 수출 모멘텀과 이익 개선세를 자극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신흥국, 그 중에서도 글로벌 경기와 수출환경에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될 전망이다.

상반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흥국 증시 강세를 준비할 때라는 판단이다.

그림 2. 글로벌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반등세,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 가능성



주: Bloomberg 전망치 기준.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변화율, 변동폭은 전분기 대비로 산출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신흥국 강세 시즌2. 글로벌 수요확대 ⇒ 주인공은 수출주도 국가

지난 3월 중순 이후 시작된 신흥국 증시 강세의 주인공은 Fragile 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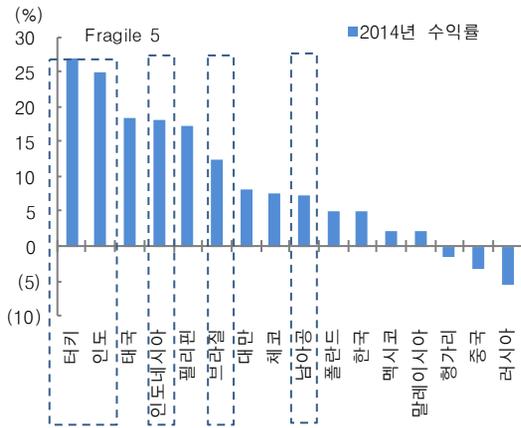
상반기 신흥국 증시의 상승 동력이 Relief(리스크 지표의 안정화)였기 때문이다. 위기의 중심국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던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는 국면에서의 승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신흥국 증시의 새로운 상승동력은 글로벌 성장모멘텀 회복 / 인플레이션 환경에 따른 신흥국 수출모멘텀 강화 / 이익 개선세다.

이러한 변화의 수혜는 상반기에도 부진했던 수출주도형 국가가 받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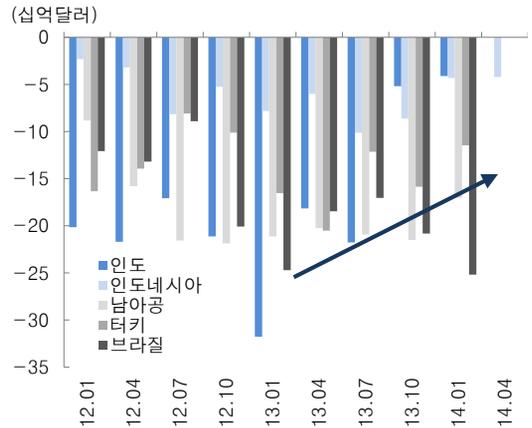
하반기 수출주도 국가 중심의 '패자의 역습 시즌 2'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그림 3. 신흥국 2014년 상반기 수익률. Fragile5 강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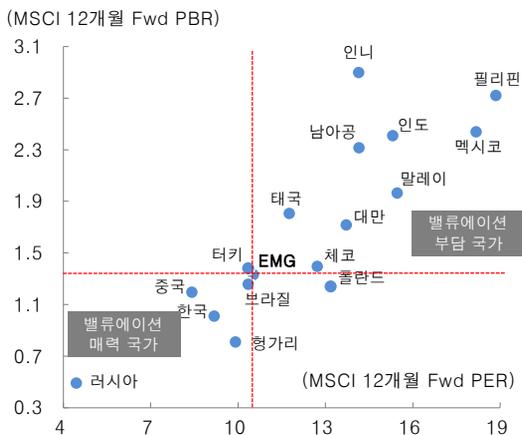
주: 2014년 연초 이후 6월 9일 종가까지 수익률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Fragile5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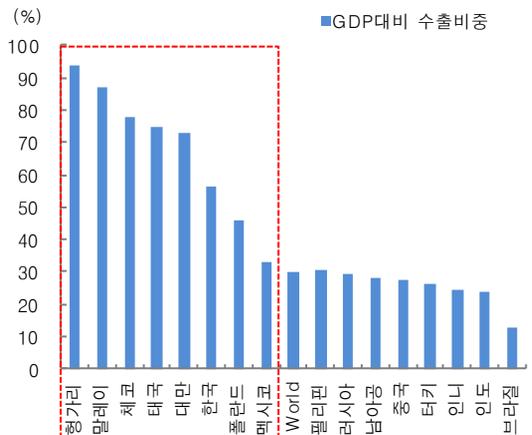
자료: OEC,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밸류에이션 부담에 노출된 Fragile5



주: 각국 MSCI 지수, IBES 추정치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수출주도형 국가



자료: IMF,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수출주도 신흥국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수출비중이 높은 이머징 국가들이 저평가받아왔던 이유는 말 그대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자체 모멘텀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할인요인은 낮은 교역량으로 인한 경제의 활동성 저하에 있다. 여기에 글로벌 저물가 기조는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신흥국의 수출모멘텀은 정체국면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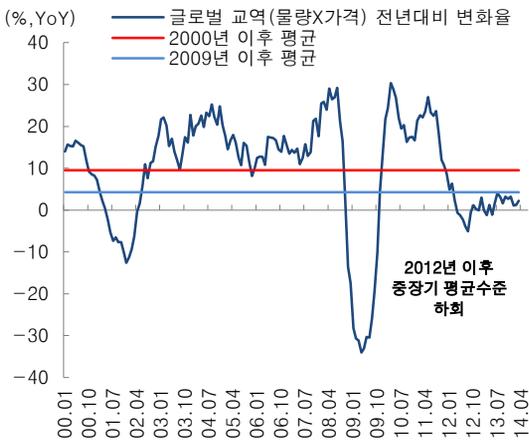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글로벌 전반의 낮은 교역량과 저물가로 인해 이익 모멘텀 둔화/약화의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수출주도 국가들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 교역량 증가는 당연한 순리이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수출모멘텀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요회복에 힘입은 물가 상승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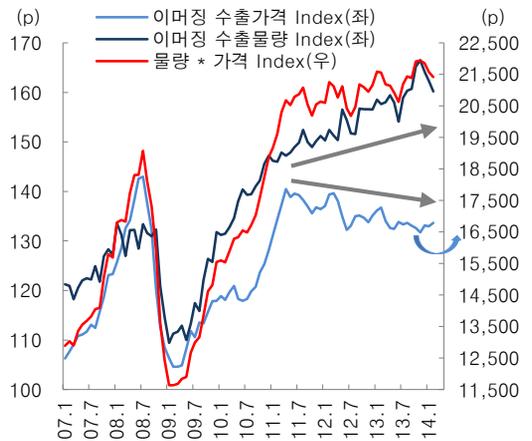
수출주도형 국가가 주목받을 환경이 하반기에는 펼쳐진다는 판단이다.

그림 7. 정체된 글로벌 교역량



자료: CPB,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모멘텀 둔화



자료: CPB,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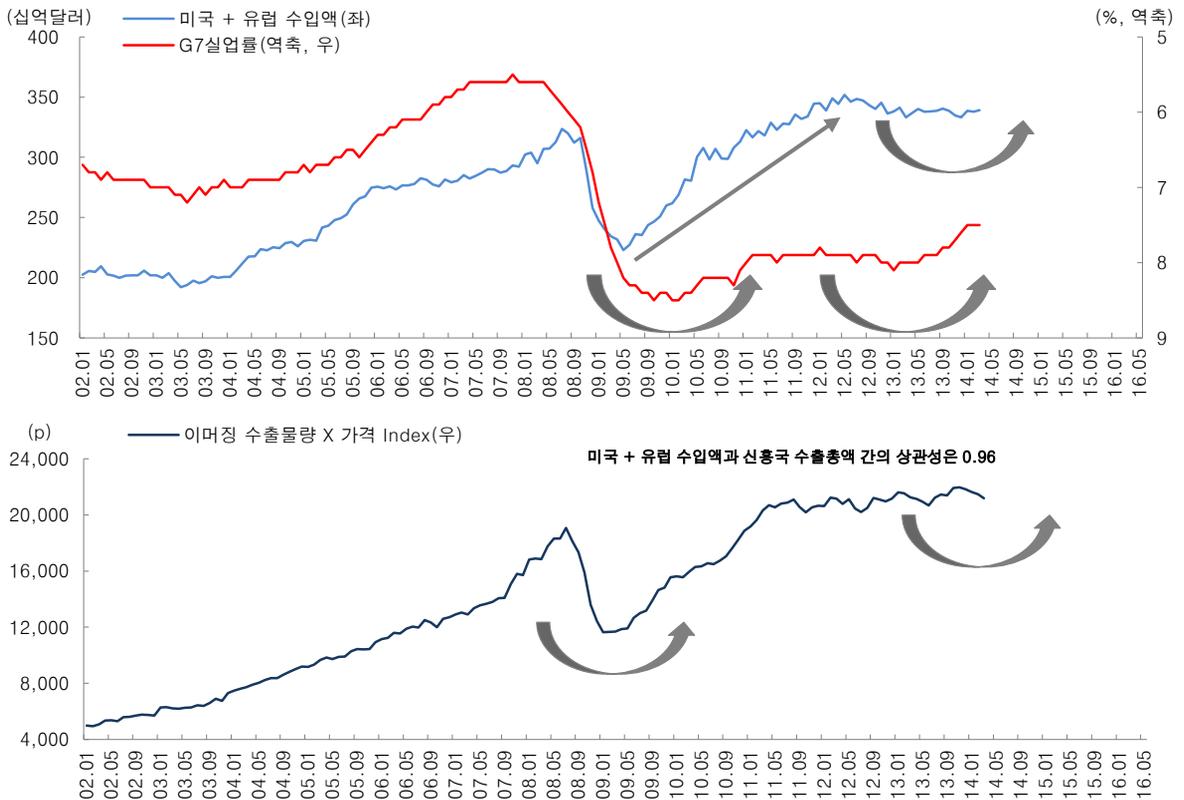
실제로 선진국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고용과 소비 간의 선순환 가능성을 높인다. 현실화될 경우 선진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고용개선세는 그동안 정체를 보였던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선진국 수요가 레벨업되는 계기이며, 이는 글로벌 수입액의 확대, 신흥국의 대 선진국 수출 증가, 이익 개선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 글로벌 성장모멘텀 회복 / 인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전환은 신흥국 증시, 그 중에서도 수출주도형 국가에 호재다.

그림 9. 고용개선 ⇒ 소비확대 ⇒ 수요 레벨업 ⇒ 수입확대 ⇒ 신흥국 수출 증가



자료: CPB,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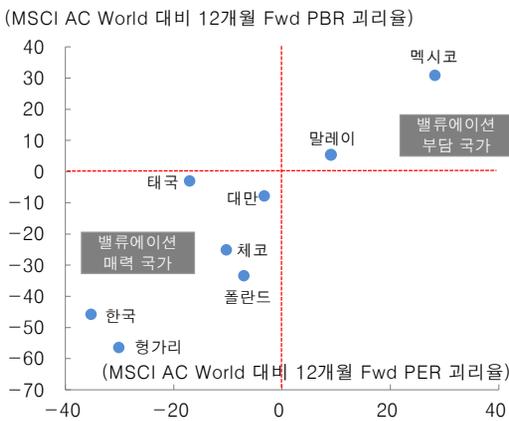
**최선호 국가 : 한국 / 유망 국가 : 대만, 폴란드**

밸류에이션 매력도, 글로벌 교역과 상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최선호 국가는 한국, 유망국가는 대만과 폴란드다.

GDP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8개)와 신흥국, 이머징대비 밸류에이션 괴리율을 보면, 한국과 헝가리가 가장 매력적이다. 차순위로는 글로벌 전체에서 매력도가 높은 태국, 대만, 체코, 폴란드가 추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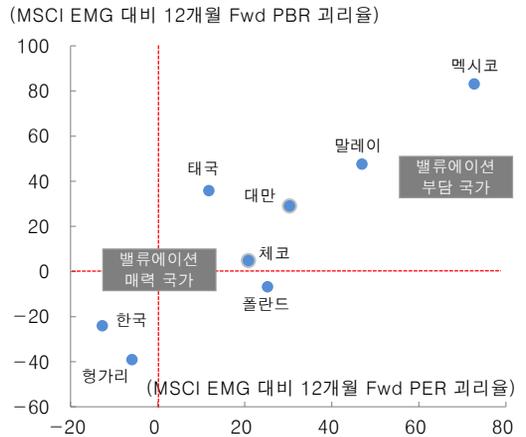
이들 6개 국가 중 과거 10년 간의 밸류에이션 수준과 비교한 결과 한국, 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상대적,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수출주도 신흥국별 글로벌 대비 밸류에이션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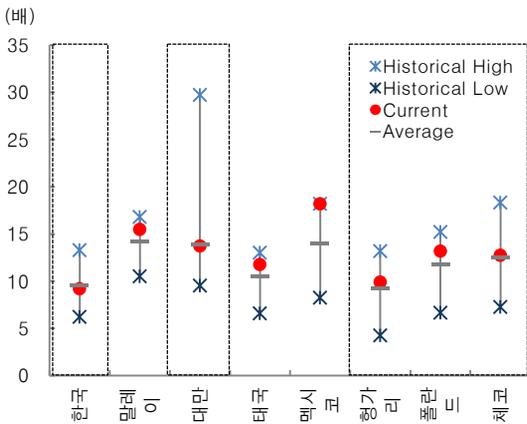
주: MSCI 기준 글로벌 대비 국가별 12개월 Fwd PER/PBR 괴리율 산출. (+)권은 자수 대비 프리미엄 영역, (-)권은 디스카운트 영역에 위치  
자료: Thomson Reuter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수출주도 신흥국별 이머징 대비 밸류에이션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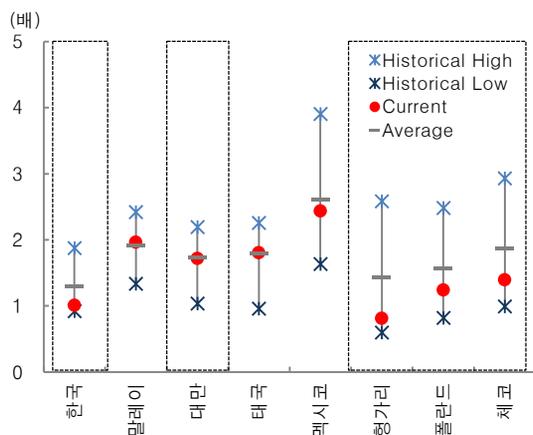
주: MSCI 기준 신흥국 대비 국가별 12개월 Fwd PER/PBR 괴리율 산출. (+)권은 자수 대비 프리미엄 영역, (-)권은 디스카운트 영역에 위치  
자료: Thomson Reuter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수출주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현황(PER 기준)**



주: 각국 MSCI 자수 기준, 12개월 Fwd PER의 10년 평균/고점/저점과 현재 위치를 표현  
자료: Thomson Reuter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수출주도 신흥국의 밸류에이션 현황(PBR 기준)**



주: 각국 MSCI 자수 기준, 12개월 Fwd PBR의 10년 평균/고점/저점과 현재 위치를 표현  
자료: Thomson Reuter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다음 단계로 한국, 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 증시의 이익(MSCI 12개월 Fwd EPS 기준) / 지수(MSCI Indexs)와 글로벌 교역지표 간의 상관관계(2000년 이후, 2009년 이후)를 점검했다. 하반기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른 성장 모멘텀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를 찾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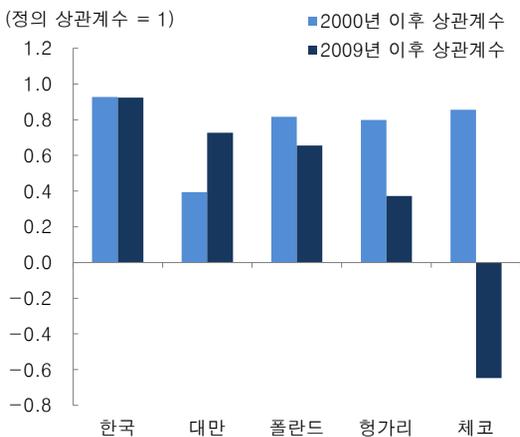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이익과 지수 모두 0.9를 넘어서는 상관관계(정의 상관관계는 1)를 기록했다. 글로벌 교역, 펀더멘털 변화에 매우 민감함을 시사한다. 대만과 폴란드도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0.5 상회).

결론적으로 수출주도 신흥국 증시 중 한국, 대만, 폴란드가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함께 글로벌 경기모멘텀 회복 / 인플레이션 국면 진입의 수혜가 가장 클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최선호 국가는 한국이다.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글로벌 저성장 / 저물가 기조가 한국 기업이익 부진, 주가 약세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한국 증시는 상대적, 절대적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에 오랜기간 머물렀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는 역으로 글로벌 경기 및 수출 모멘텀 회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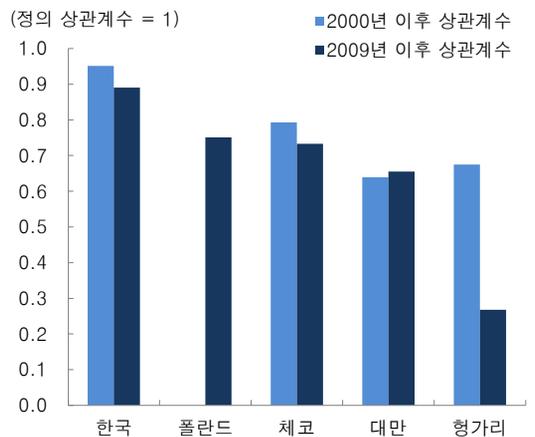
이와 함께 대만, 폴란드 증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글로벌 경기민감도와 함께 대만은 높은 제조업 비중(특히, IT)을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는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4. 국가별 이익과 글로벌 수출/수입 간의 상관계수



주: MSCI 지수 기준, 국가별 12개월 Fwd EPS와 글로벌 수출입 규모 / 가격과의 상관계수 산출  
 자료: CFB, Thomson Reuters,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국가별 주가지수와 글로벌 수출/수입 간의 상관계수



주: 국가별 MSCI 지수와 글로벌 수출입 규모 / 가격과의 상관계수 산출  
 자료: CFB,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파생시황

구분	6월 선물	9월 선물	KOSPI200	KOSPI
시가	261.7	263.3	261.24	2000.89
고가	262.85	264.45	262.77	2011.87
저가	261	262.5	260.36	1996.21
종가	262.6	264.2	262.64	2011.8
전일대비 (%)	2.4	2.5	2.96	21.76
	0.92	0.96	1.14	1.09
거래량(계약)	145,337	12,221	57,763	232,247
거래대금(백만)	19,029,272	1,610,970	2,926,546	3,837,230
미결제약정	84,952	55,365		
전일대비	-8840	27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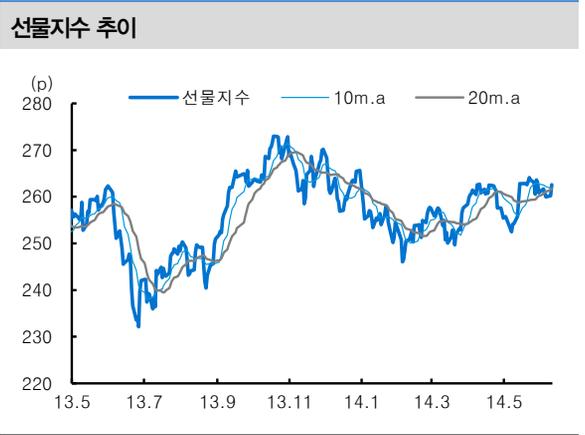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구분	이론가격	과리율	종가Basis	평균Basis
최근월물	262.70	0.18	-0.04	0.53
차근월물	264.31	0.19	1.56	2.28

구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전체			비중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06/05	31,613	13,400	-18,213	951,187	890,759	-60,429	982,800	904,158	-78,642	21.32
06/09	9,781	70,751	60,970	780,583	1,039,150	258,567	790,364	1,109,901	319,537	21.05
06/10	9,835	23,260	13,425	664,649	954,544	289,894	674,485	977,804	303,319	2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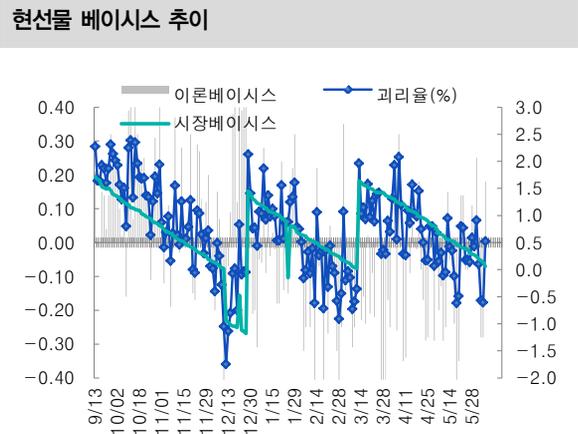
구분	CALL	FUT	합계	P/C Ratio	당일
거래량	1,131,197	1,208,949	2,340,146		1.07
거래대금	404,914	319,897	724,811		0.79
미결제약정	511,391	638,503	1,149,894		1.25
내재변동성	11	14	13		1.32

구분	당일	52w High	52w Low
20일	17.02	26.95	7.87
30일	17.90	26.05	8.18
60일	17.65	23.55	10.82
90일	18.55	22.30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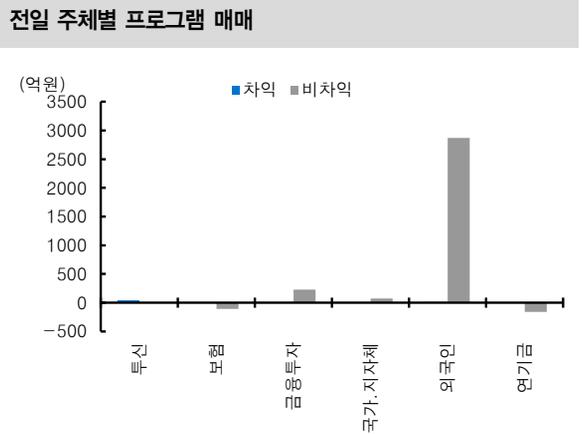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구분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J6J9S	1.55	0.10	56365
J6JCS	3.15	0.05	10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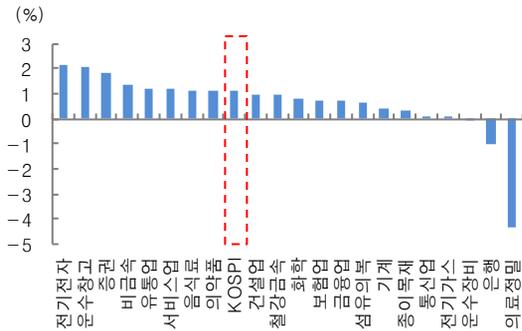
# Chart Alarm

## 01. 주가 등락률

- 10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1.09% 상승한 211.80에 마감
- 외국인은 2149억원, 기관은 84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227억원 매도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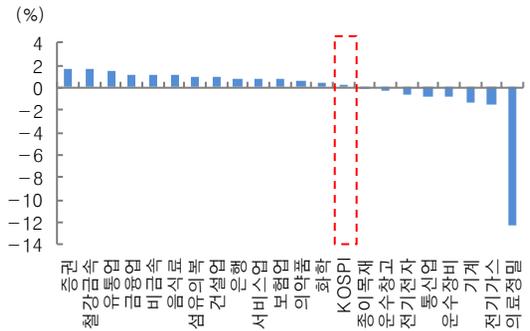
### ▶ 국내 증시

#### 전일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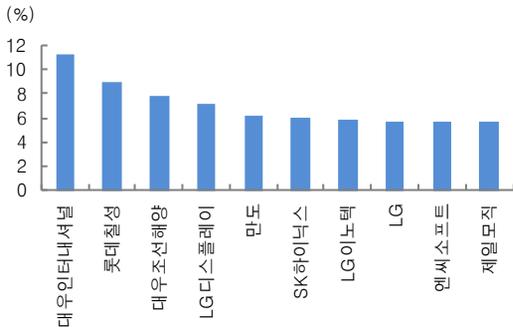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최근 5일간 업종지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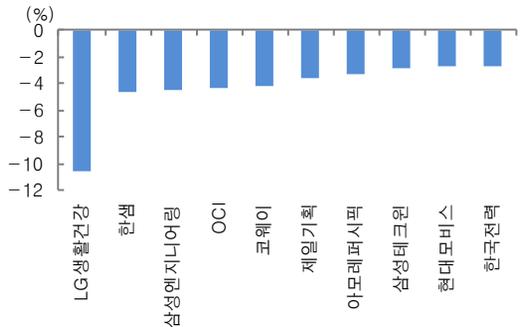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최근 5일간 대형주 상승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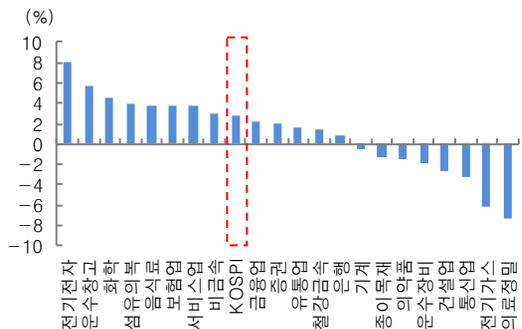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 최근 5일간 대형주 하락률 상위 10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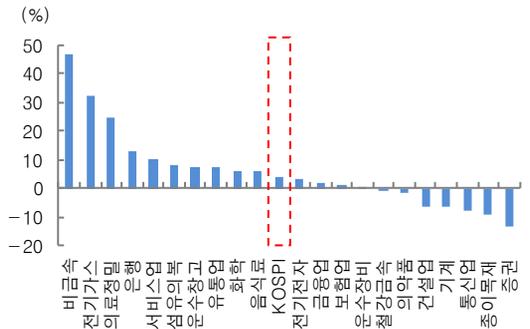
주: 대형주는 KOSPI 시총 상위 100종목임  
자료: Bloomberg

#### 최근 1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Bloomberg

#### 연간 업종 수익률





## 02. 상품가격

- 9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1.7% 상승한 104.41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 선물 8월 인도분은 전일대비 0.11% 오른 온스당 1253.90달러에 거래를 마침

###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 발틱 운임 지수(BDI, B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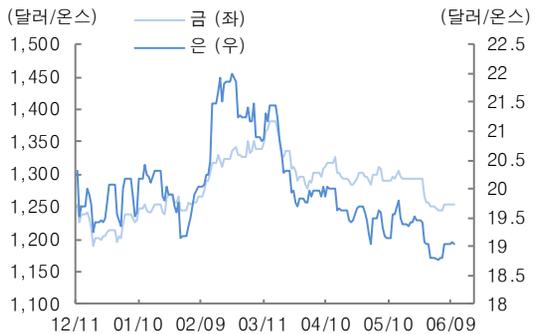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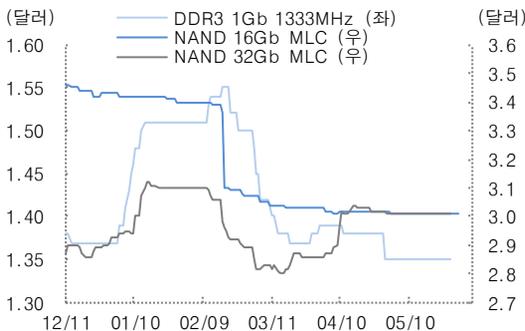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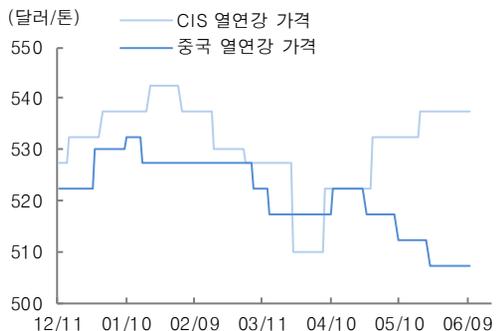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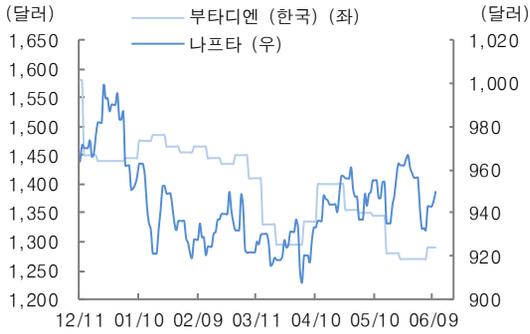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철강 가격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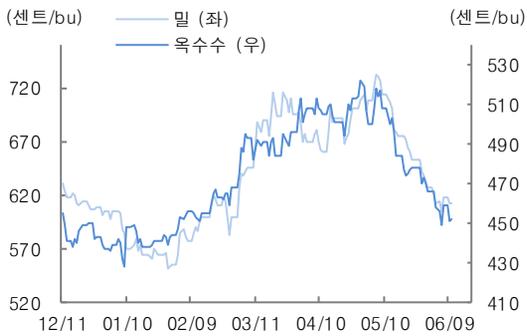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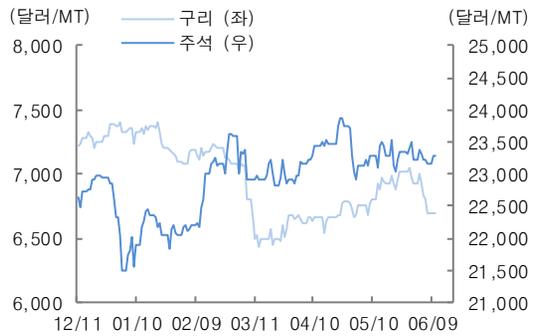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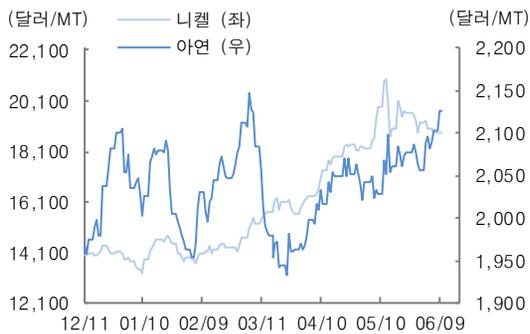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주석 가격**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알루미늄, 납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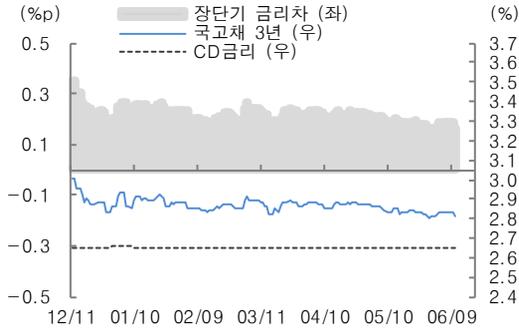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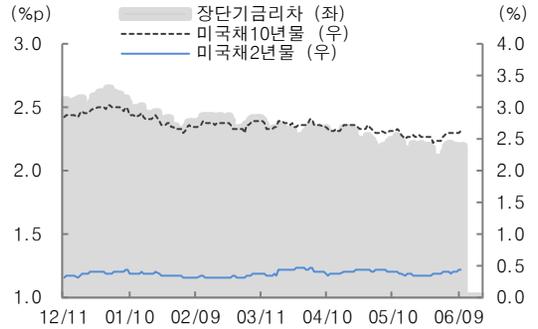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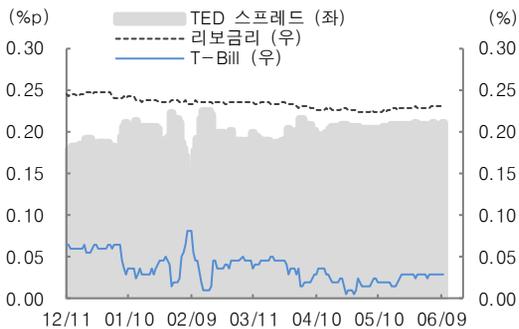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스페인, 이탈리아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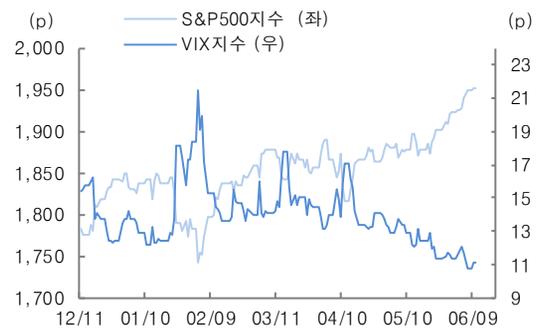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S&P500 지수와 VIX 지수



자료: Bloomberg

## 매매 및 자금 동향

###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6/10	6/09	6/05	6/03	6/02	06월 누적	14년 누적
개인	-222.7	-18.8	186.7	44.2	-57.5	-68	511
외국인	212.6	19.0	64.9	18.4	213.2	528	1,674
기관계	8.4	-4.7	-435.0	-59.6	-161.1	-652	-2,246
금융투자	-31.9	15.4	-167.6	-280.8	-40.5	-505	-3,464
보험	4.9	16.6	57.6	14.3	13.8	107	726
투신	22.8	11.7	-98.6	-23.9	-101.8	-190	-1,128
은행	-9.1	-6.5	-18.0	-22.2	-8.0	-64	-998
기타금융	-0.7	-0.8	-170.0	7.9	1.0	-163	-396
연기금	-2.5	24.2	-1.6	164.7	26.9	212	2,893
사모펀드	1.4	-75.6	-33.2	31.1	-36.0	-112	-42
국가지자체	23.3	10.2	-3.5	49.3	-16.6	63	162

자료: Bloomberg

### ▶ 종목 매매동향

####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46.5	SK 이노베이션	10.6
LG 디스플레이	35.2	LG 생활건강	9.8
SK 하이닉스	22.6	삼성 SDI	7.8
NAVER	22.2	신한지주	6.4
LG 화학	15.4	삼성전기	6.0
삼성생명	14.4	코웨이	5.2
엔씨소프트	14.0	삼성중공업	4.5
기아차	12.5	제일모직	4.5
LG 전자	11.6	현대중공업	4.5
KB 금융	10.6	한전 KPS	4.1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LG 전자	22.3	삼성전자	40.7
현대제철	19.1	기아차	19.8
NAVER	18.9	현대차	18.1
LG 화학	15.2	현대모비스	15.8
SK 이노베이션	12.9	LG 디스플레이	14.4
하나금융지주	12.0	SK 하이닉스	9.3
한국타이어	10.8	삼성전기	8.6
LG	8.1	한국전력	7.0
제일모직	8.0	두산인프라코어	6.5
대우인터내셔널	6.7	POSCO	6.1

####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원익 IPS	5.5	다음	3.8
파라다이스	2.4	웨이브일렉트로	1.7
아프리카 TV	2.2	인트론바이오	1.4
리홈채	2.0	에스엠	1.4
내츄럴엔도텍	1.9	선데이토즈	1.2
키이스트	1.7	컴투스	1.1
셀트리온	1.4	솔루에타	1.1
서울반도체	1.3	게임빌	1.0
솔브레인	1.2	매일유업	0.9
셀바이오텍	1.1	포스코 ICT	0.9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CJ E&M	6.3	내츄럴엔도텍	2.8
메디톡스	4.7	차바이오텍	2.6
실리콘웍스	2.2	하나머스트스팩	2.1
웨이브일렉트로	1.8	솔브레인	2.0
서울반도체	1.8	이오테크닉스	1.7
컴투스	1.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5
인트론바이오	1.4	이라이컴	1.4
다음	1.2	한스바이오메드	1.4
게임빌	1.1	하림	1.1
한글과컴퓨터	1.0	산성앨앤에스	0.9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SK 하이닉스	94.9	5.9	LG 생활건강	89.9	-8.2	삼성 SDI	65.1	9.9	제일모직	131.1	10.0
LG 전자	80.6	4.0	삼성전자우	83.3	0.1	LG 전자	59.2	4.0	삼성전자	103.7	-1.3
LG 디스플레이	61.6	8.0	SK 이노베이션	42.8	-3.3	롯데케미칼	46.9	8.0	기아차	50.4	-2.2
NAVER	60.2	2.8	현대중공업	27.7	-0.3	LG	32.4	4.3	엔씨소프트	49.5	7.3
LG 화학	43.9	3.0	LG	26.4	4.3	LG 생활건강	32.0	-8.2	KB 금융	48.3	2.0
한국전력	41.0	-2.2	삼성 SDI	18.0	9.9	한국타이어	23.9	5.2	삼성물산	46.8	1.9
삼성생명	39.9	4.9	NHN 엔터테인먼트	14.8	0.7	LG 화학	22.9	3.0	현대차	43.1	-1.5
삼성물산	37.6	1.9	동양생명	13.3	-1.0	현대제철	18.5	3.8	한국전력	42.6	-2.2
KB 금융	36.3	2.0	KCC	11.5	10.4	삼성전자우	17.2	0.1	LG 디스플레이	42.1	8.0
엔씨소프트	29.0	7.3	코웨이	11.0	-5.7	삼성중공업	16.2	2.3	삼성전기	37.8	-1.6

자료: KOSCOM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6/10	6/09	6/05	6/03	6/02	06월 누적	14년 누적
한국	235.2	26.4	66.0	38.9	188.8	555	2,409
대만	325.3	139.6	44.2	126.5	0.0	647	8,003
인도	--	--	239.4	111.0	49.2	1,008	9,086
태국	--	4.0	42.1	94.7	82.0	250	-984
인도네시아	22.9	-65.8	-5.2	-21.3	71.0	56	3,656
필리핀	25.3	12.8	4.0	10.1	-12.8	20	985
베트남	1.9	0.4	0.5	6.7	5.4	18	231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